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14

다음은 제22,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이다. 여기서는 공덕림(功德林)보살이 이 단계에서 더 훌륭하게 나아가는 덕을 보는데 열 가지 한없는 수행하는 양상'을 말하였다.

"무엇이 열 가지 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信藏), 한없는 계행(戒藏), 한없이 부끄러워함(慚藏), 한없는 조심(愧藏), 한없는 공부(聞藏), 한없는 보시(施藏), 한없는 지혜(慧藏), 한없이 명심함(念藏), 한없이 간직함(持藏), 한없는 번재(辯藏)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느니라 (...令諸菩薩究竟成就無上菩提). 이렇게 무진장(無盡藏)하니 흔히 화엄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화엄에서

彌頂 夜摩天宮 而往詣於兜率陀天一切妙寶莊嚴藏...)

이어서 서론적인 도솔궁중계찬품(兜率宮中偈讚品) 제24의 계승을 살펴보자.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님의 참된 경계 알지 못하니 청정한 일을 오래 뒤야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 마치 비옥한 밭에 뿌린 씨 잘 자라듯이 깨끗한 마음 밭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법생각하느니라. 마치 아가타(阿伽陀)약이 모든 독을 소멸하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느니라 / 중생들은 말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성도하셨다 하나 부처님이 보리를 얻은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위의 계승 중 그 마지막 계승에 유의해보자. 이것은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서 말하는 정신 곧 오랜 세월 전에 성불하신 부처님(久遠實性的本佛)의 사상이 깃들든 것으로 볼 수

### 무진장한 法 닦아 보리 이루리

#### "용왕은 중생 정성·고통 살펴 단비 내려"

열거하는 보살의 이름에 바다나 산, 숲 그리고 창고 등을 비유로 말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공덕림(功德林)이나 금강장(金剛藏)이나 묘엄해(妙焰海), 공덕산(功德山) 등이 그런 사례이리라. 이것으로 제4회의 법문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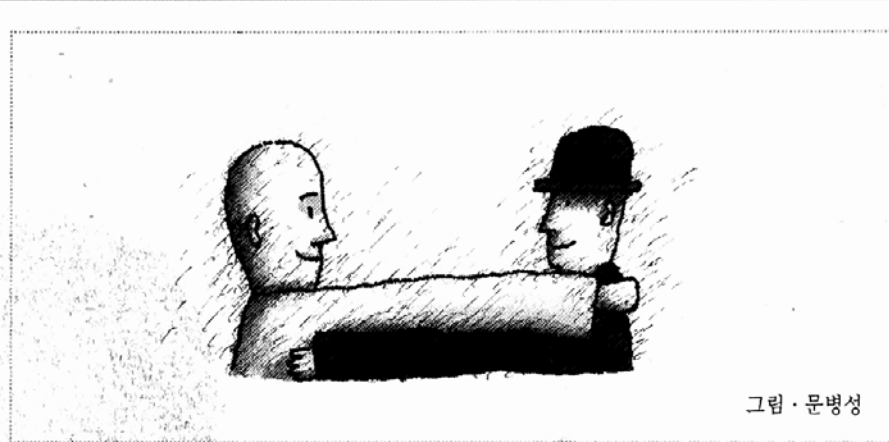
부처님이 보리를 얻음은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어서 제5회 설법장소인 도솔천궁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보자. 수많은 보개(寶蓋)와 화장(寶帳), 의복, 방울 등의 장엄이 늘어선 보배궁전에서 계승이 설해진다. 승도솔천궁(昇兜率天宮) 제23의 장엄에 이르기를, "그 때 세존께서는 다시 신력으로 이 보리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서 도솔대 천으로 가시어 일체의 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시었다. 그 때 도솔대천왕은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심을 보고 궁전에 마니로 장엄된 사자좌를 놓았다. 그 사자좌는 천상의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과거에 닦은 선근으로 얻은 것이며... (爾時世尊復以神力 不離於此菩提樹下 及須

있다. 법화경에서는,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같이 오래이고 멀지 마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고 하였다. 계승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말하였다. "내 스스로 성불하여 지나온 그 겁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가 되느니라 / 중생제도 위하여 열반을 말하지만 그 실은 멀도 않고 항상 이 법 설하느니라."

이러한 구원실성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은 대승불교사상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법화경과 화엄경의 사상은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처에서 올리던 기우제(祈雨祭) 덕본인지 담당하던 가물도 물러가고, 시름 많은 농부의 얼굴에도 웃음이 넘치게 되었다.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서는 마나사(摩訶斯) 용왕은 하늘에서 중생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중생들의 정성과 고통을 감안해서 단비를 내리준다고 하였다. 다만 가물이 물난리로 연결되지 않기를 부처님 앞에 기원 드러본다.

■ 불경사상 농업학립 연구원



그림·문병성

## 불교, 배척보다 공존 지향

### 불교와 과학 <33>

이 연재는 '불교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의 주제들이 불교의 우주관이나 석존의 살아 있는 음성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왔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호흡을 늦추고 불교와 과학을 비교하거나 그 상관성을 찾으려는 까닭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쩌면 불교와 과학은 처음부터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범주일지도 모른다. 불교는 근원적으로 우주에 대한 언어에 제한될 없는 존재인식과 삶에 대한 행위인식의 범주이지만 과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언어영역 내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같은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둘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자색역학에서 입자들 사이의 비결정론적 인과율이나 카오스 현상의 피드백적인 인과율을 연 기론과 직접 비교하는 일은 그것들 사이의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무리 많아도 성급한 비교작업이거나 불교의 포괄적 위대성을 과대 포장하여 보여주려는 억지추행일 수 있다. 불교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지식의 범주에서 포괄하려는 것이기보다는, 과학적 세계관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과학명명의 병리적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광대한 관용의 눈을 갖고 과학을 대할 수 있다.

서구에서 중세 이후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배척적인 관계였다가 근대 중반 이후에야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처럼 과학과 기독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구 정신사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사상적 기둥이 되어 왔다. 배척에서 화해로 가는 서구 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시민 사회로 전환하는 서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사이의 화해를 성립시키는 반면에 제국주의의 발길을 신대륙에 돌려놓아 서구와 비서구라는 인종적 배척의 관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런 배척의 역사는 엄밀히 말해서 과학보다는 권력화된 중세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불교는 처음부터 관용의 역사를 지녔다. 그래서 배척보다는 화해를, 또한 배척보다는 공존을 그 깨침의 방법론으로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기독교와 비교해서 종교적 특성이 약하고 철학에 가깝다고 한다. 밖에 존재하는 유일신이 아니라서, 혹은 종말이라는 시점이 없어서 신앙과 포교의 특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잣대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 자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불교는 외재하는 유일신과 종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종교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비와 관용이라는 불교의 우주론적 미소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김용욱의 노자와 눈어 방 송강의를 예로 들어본다. 개인적으로 김용욱의 강의 내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마침 불교 신자 한 분이 <도움에게 던지는 사자후>라는 제목으로 김용욱의 강의를 반박하는 비판서를 출판하여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보고 나는 더 큰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에서 교회 이 단자를 마녀사냥 했듯이, 김용욱을 불교와 화해할 수 없는 배척주의자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들어오기까지 노자와 공자, 하다 못해 사마니즘과도 관용과 화해를 나누어 왔다는 사실을 그 책의 저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용욱을 불교의 가면을 쓴 유교 전파자로만 단정지었다. 더더욱 문제는 불교방송에서 아무런 학문적인 여과 장치 없이 그 저자의 이야기를 방영했다는 점이다. 책의 저자가 말한 배척의 근거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배척은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 김용욱의 불교 이해는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김용욱의 비교연구가 지나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책불로 간주한다면, '종교와 철학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금륜(金輪) 제9호에 실린 서양철학과 불교의 연대성을 강조하신 청화르스님의 법문 내용도 책불이 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결국 김용욱의 강의를 책불로 단정짓고 만다면, 불교는 너무 자기 율타리에 갇혀버리는 비판용의 종교가 될 수 있다.

관용은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폐쇄를 거부하며 다양성을 지향한다. 불교가 과학을 포용하는 이유는 과학적 성과물의 지식이 불교적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불교와 과학이 상식적 앞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과학은 상식적 앞에서 체계적 앞으로 외향만 바뀔 뿐이지만, 불교는 앞의 관용을 통하여 상식적 앞에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우주적 앞을 보고 있는 것이다.

■ 최희종덕/상지대 교수 jchoi@chek.sangji.ac.kr

### 불교-과학의 상관성

과학 체계적인 분석 지식 지향  
불교 광대한 눈으로 과학 포용

적 특성이 약하고 철학에 가깝다고 한다. 밖에 존재하는 유일신이 아니라서, 혹은 종말이라는 시점이 없어서 신앙과 포교의 특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잣대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 자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불교는 외재하는 유일신과 종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종교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비와 관용이라는 불교의 우주론적 미소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김용욱의 노자와 눈어 방 송강의를 예로 들어본다. 개인적으로 김용욱의 강의 내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마침 불교 신자 한 분이 <도움에게 던지는 사자후>라는 제목으로 김용욱의 강의를 반박하는 비판서를 출판하여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보고 나는 더 큰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에서 교회 이 단자를 마녀사냥 했듯이, 김용욱을 불교와 화해할 수 없는 배척주의자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들어오기까지 노자와 공자, 하다 못해 사마니즘과도 관용과 화해를 나누어 왔다는 사실을 그 책의 저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용욱을 불교의 가면을 쓴 유교 전파자로만 단정지었다. 더더욱 문제는 불교방송에서 아무런 학문적인 여과 장치 없이 그 저자의 이야기를 방영했다는 점이다. 책의 저자가 말한 배척의 근거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배척은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 김용욱의 불교 이해는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김용욱의 비교연구가 지나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책불로 간주한다면, '종교와 철학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금륜(金輪) 제9호에 실린 서양철학과 불교의 연대성을 강조하신 청화르스님의 법문 내용도 책불이 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결국 김용욱의 강의를 책불로 단정짓고 만다면, 불교는 너무 자기 율타리에 갇혀버리는 비판용의 종교가 될 수 있다.

관용은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폐쇄를 거부하며 다양성을 지향한다. 불교가 과학을 포용하는 이유는 과학적 성과물의 지식이 불교적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불교와 과학이 상식적 앞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과학은 상식적 앞에서 체계적 앞으로 외향만 바뀔 뿐이지만, 불교는 앞의 관용을 통하여 상식적 앞에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우주적 앞을 보고 있는 것이다.

## 禪 응용 잠재력 개발 NBA 최다 우승 비결

### 지구촌 불교 / 필 잭슨 명상법

LA 레이커스가 미 프로농구(NBA) 1999-2000시즌에 이어 2001 시즌 최종 챔피언결정전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누르고 2연패를 달성하면서 필 잭슨 감독의 명상 훈련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NBA 사상 통산 여덟 차례 우승을 이끌며 '최다 우승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 비결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필 잭슨 감독은 시카고 불스에서 6년, 그리고 LA 레이커스에서 2번 NBA 우승을 따냈다. 마이클 조던, 스킷 피텐이시 시카고, 사킵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이상 LA)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거느린 덕에 행운을 누리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 필 잭슨 감독이 명장 중의 명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미 스포츠평론가들은 "선(禪)에 심취한 필 잭슨 감독이 명상 훈련을 통해 승리와 중용, 그리고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가 스타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조직력과 수비력을 갖춘 팀으로 다듬은 게 우승의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연패의 영예를 안은 LA 레이커스의 경우, 96년 오닐을 영입하고 나서도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던 팀이었다. 그런데 필 잭슨이 99년 6월 지휘봉을 잡은 후 '팀워크'를 살리자 1999-2000 시즌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올 시즌도 패권을 잡았다.



▶ 챔피언 결정전에서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필 잭슨 감독.

### 참선 통해 선수기량 조직력 강화 배어난 팀워크로 여덟차례 우승

이번 최종 챔피언결정전에서 보여준 LA 레이커스의 경기 내용은 명상 훈련법의 효과를 입증해 주기에 충분했다. LA 레이커스는 스타 플레이어인 오닐과 브라이언트 외에 폭스, 호리, 그랜트 등이 고른 활약을 펼쳤고 동료들 도와주는 협력 디펜스로 필라델피아를 괴롭혔다. 공격 일변도이며, 자신의 마크맨 외에는 수비에 신경쓰지 않았던 지난날의 LA 레이커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올 시즌 초반 오닐과 브라이언트가 사대질까지 해대는 심각한 불화로 팀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을 설득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설한 필 잭슨 감독이었다.

미 스포츠평론가들은 필 잭슨 감독의 명상 훈련법은 팀의 조직력만 아니라 선수의 집중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데에도 적잖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선수에게 필요한 것으로 체력과 기술을 꼽지만 '잠재력'이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심리학자 마이클 노박 박사는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에 몰입한 순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육체, 힘, 기술 등이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적 인 신경작용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신작용이 필요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때 선수들은 새로운 자신을 보고 잠재력을 일깨워 승리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필 잭슨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적인 장애 요인을 없애고 정신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명상 훈련'을 계속 강조하는 한, LA 레이커스가 5번이나 정상에 오른 80년대의 황금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a.com

##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문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정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청 옥



백 옥



황 옥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장수거북(청옥·화옥)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외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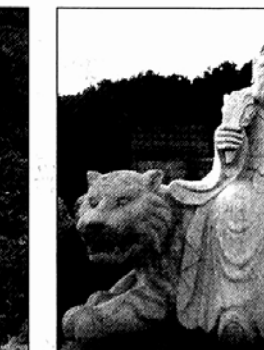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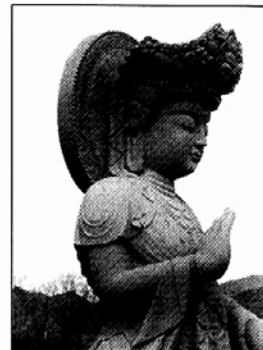
단주 · 1688염주 · 함장주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